

2025학년도 1학기 문헌연구보고서



**양안관계 격화에 따른 제3차 국공내전의 가능성:
한국과 미국의 반응과 한국의 정책 방향성 중심으로**

이름	남신화
전공	정치외교학과
학번	20243444

목차

1. 서론.....	3
2. 대만해협의 긴장과 전쟁의 가능성.....	4
3. 예견된 미국의 참전.....	7
4. 불안정한 위치; 한국	8
5. 결론: 한국의 정책적 방향성 제언.....	10

양안관계 격화에 따른 제3차 국공내전의 가능성: 한국과 미국의 반응과 한국의 정책 방향성 중심으로

1. 서론

양안관계(兩岸關係)란 중화민국(이하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간의 관계이다. 양안관계는 1946~1949년까지의 2차 국공 내전 이후에 장제스(蔣介石)가 대만으로 민주당을 옮겨 대만을 세우면서 생겨난 것이 최초이다. 이 양안관계는 현재까지 많은 분쟁을 낳았다. 1~3차 대만해협 위기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횡수와 수위가 늘고 있는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군사훈련, 대만에 대한 중국의 선거 개입, 반도체 기술 경쟁 등이 있다. 이러한 양안관계가 최근 들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횡수가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중국의 고위 공무원들의 무력통일 발언 일전에도 있었으나 최근 들어 빈도가 늘고 있고 수위가 오르고 있다. 2017년부터 미 국무부 대변인의 타이완 언급이 지속해서 증가하다 2021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또한 타이완 언급이 증가하고 있다¹. 2022년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를 통해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고², 2019년 6월 중국의 국방백서에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의 공식 정책으로 언급했다³. 이에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방어는 약속이라고 응수하면서 전쟁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압박과 선거 개입 속에서 총통 선거를 치르면서 라이칭더 신임 총통이 선출되었다. 라이칭더 총통은 차이잉원 전 총통의 노선을 계승하고 미국과의 관계 강화와 대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며⁴ 중국의 대만 고립 외교정책에 대응하여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대만의 반응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군사적 훈련의 횡수를 늘려 나가고 있고 최근 대만을 둘러싼 군사훈련

¹ KBS시사(2023.8.8), <타이완 위게임 [풀영상] | 창 430회 (KBS 23.08.08)>, KBS시사, <https://www.youtube.com/watch?v=FhVxF08Npxs&list=WL&index=7>(2024.10.11).

² 김준영(2024),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도와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22-1, 한중사회과학학회, 35~62쪽.

³ 강준영(2022), 「중국-대만, 양안 무력 충돌 위기의 함의 -미국의 대만 지원 및 갈등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20-1, 한중사회과학학회, 9~32쪽.

⁴ 이장훈(2024. 2), 글로벌 포커스 '친미 독립파'의 승리로 끝난 대만 총통 선거 : 중국 '블랙리스트' 라이칭더 당선... 대만인들은 '제2의 홍콩' 거부했다, 월간중앙, 86~91쪽.

은 대만침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⁵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더해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하여 전쟁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시작하면서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맞불 작전을 시행하였다.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미국 수입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양국 간 대만에 대한 경쟁뿐만 아니라 무역에서도 불이 붙으며 파국을 치닫고 있다.

이러한 반응들 때문에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면서 한일의 반응에 대해 여러 주장이 제기되었다. 저자는 본 고를 통하여 한미의 정치적, 군사적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한국의 정책적 방향성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2. 대만해협의 긴장과 전쟁의 가능성

국가 간 전쟁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한다. 국내적인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국외적인 외교적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의 개인적인 성향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번 대만 침공 전쟁에서도 여러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선에서, 또는 대만과 중국의 극적인 합의에 다다를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 및 싱크탱크(CSIS 등)에선 전쟁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서방의 정보당국 또한 전쟁의 가능성을 9할 이상으로 예측한다. 본 저자 또한 전쟁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그 시기는 2027년이 유력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⁶. 4 연임의 명분이 없다는 점, 2027년을 기점으로 군의 현대화를 마무리한다는 점, 바다는 국제 패권의 핵심이라는 점,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중국을 하나로 결속력을 강화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시진핑은 4 연임의 명분이 없다. 지난 2022년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를 통해 3번째 임기가 시작되어 2027년을 끝으로 마무리되지만 다음 임기에 정당성을 불어넣어 줄 확실한 성과가 없다. 그러는 와중에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단순히 실패가 아닌 백지 시위로 이어졌다. 1989년 천안문 시위부터 지금까지 민주화 시위는 분절적이거나 단편적이었으나 이번 백지 시위는 유기적이었다. 백지 시위가 시진핑의 퇴진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내부에서 불만

⁵ 김준영(2024),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도와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22-1, 한중사회과학학회, 35~62쪽.

⁶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개인의 판단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본 글의 4가지 이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것에, 그리고 분절적이던 시위가 유기적인 시위로 바뀌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것은 더 큰 시위의 첫걸음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지난 수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8%대, 최고 성장률이 10%가 넘었던 시기를 보면 지금의 5%대의 성장률은 경제가 피크를 찍고 식어가고 있는 시기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러한 경제 성장률에 거품이 끼었을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이 침체기를 맞으면서 분양되지 않은 부동산이 넘쳐나지만 부동산 개발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 활동이 고스란히 GDP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 이는 5%대의 경제성장률이 왜곡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⁷. 제조업에서도 부침을 겪고 있는데 과잉 공급의 여파이다⁸. 실질적인 수요를 제외한 남은 부분은 잉여물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소비 감소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물가 침체로 이어졌다⁹. 또한 2023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022년 대비 약 83%가량 감소했다¹⁰. 이러한 상황들 속에 시진핑 주석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져 가고 통치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다. 자국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의 적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인 관심 전환 전쟁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¹¹.

다음으로 중국은 중국 인민 해방군(PLA)의 현대화 작업을 2027년에 완료하기로 하고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DF-21(동평)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실전배치 했으며 공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생산할 만큼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고 미국의 F-35 계열의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할 J-35 전투기를 공개 하기도 했다¹². 해군에서는 세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그중 두 척의 항모(랴오닝 함, 산둥함)은 실전배치 되었고 남은 한 척(푸젠함)은 실전배치 직전까지 왔다. 네 번째 항모로 핵추진 항모를 건조 중에 있음이 보도로 나올 만큼 군에 대한 현대

⁷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2024.12.3), <'21세기 마오쩌둥' 덩샤오핑은 죽었다...시진핑은 어떻게 중국을 망쳤나>,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XVWK1gIEqck&list=WL&index=13>(2024.12.9).

⁸ 중국의 제조업은 싼 값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⁹ 이현식(2024.3.9), <[지식뉴스] 상하이에도 베이징에도 '텅텅'...본격화된 중국 경제 침체의 진실① (ft.이현식 SBS D콘텐츠제작위원) / 교양이를 부탁해 / 비디오머그>, 비디오머그 - VEDIOMUG, https://www.youtube.com/watch?v=CSL_bZUKkCE&list=WL&index=11(2024.10.29).

¹⁰ 위와 같음

¹¹ 김지용(2024), 「중국의 대만 침공과 미국의 서태평양 철수 가능성 분석: 청중비용과 해군력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30-1, 세종연구소, 5~33쪽.

¹² 최현준(2024.11.12), 「중국, 5세대 스텔스기 J-35 첫 공개...미 F-35 대항마」,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67007.html(2024.12.09).

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 번째, 대만 침공은 미국과의 서태평양에 대한 제해권 경쟁으로 볼 수 있다. 1488년부터 2017년 사이의 국제 패권 경쟁 중 12차례는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중 11차례는 제해권 쟁탈과 관련 있다¹³. 대만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장애물과 다름이 없다. 대만해협 전선은 서태평양 제해권과 직결되고¹⁴ 그렇기에 대만을 손에 넣어야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한국의 하상 운송량의 약 34%는 대만해협을 통해 들어오고 그 중 원유의 약 90%는 대만 해협을 통해 운송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의 활동반경이 더욱 넓어져 시사군도, 난사군도, 등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에 힘을 더욱 이 실을 수 있다.

네 번째로 대만과 통일을 완수하면 미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대등한 관계 또는 우위로 올라설 수 있다. 반도체 공정은 팹리스, 파운드리, 세미캡으로 나눌 수 있고 공정에서의 핵심은 파운드리이다¹⁵.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과 한국이 양분하고 있으며 그 중 대만의 TSMC가 우위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제대로 된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한 나라는 대만과 한국뿐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을 침공할 충분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을 흡수할 수 있다면, 즉 대만의 TSMC를 흡수할 수 있다면 반도체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중국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코로나 정책과 중국공산당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던 경제성장이 줄어들면서 중국공산당의 통치에 정당성 약화를 가져왔으나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택하면서 중국은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되었다¹⁶. 중국은 전쟁을 택할 때 동반

¹³ 문계성(2023),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 위협 분석과 대응」, 『접경지역통일연구』7-1,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1~29쪽.

¹⁴ 위와 같음

¹⁵ 팹리스는 설계, 파운드리는 생산, 세미캡은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뜻한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인텔, 애플, 엔비디아 등)은 팹리스에 특화 되어 있으며 인텔 파운드리, 마이크론, 글로벌 파운드리 등, 파운드리 회사 있으나 마이크론을 제외하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마이크론 마저도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만 삼성, 하이닉스에 이어 업계 3위에 있으며 HBM은 한국에, 시스템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에 의존하고 있다.

¹⁶ 앞서 시진핑의 4연임의 명분이 없다는 점에 경제성장과 백지시위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하며 중국 내부에서는 불만이 있다. 하지만 관세 전쟁으로 외부에 적이 설정되고 전쟁을 택함에 있어서 내부의 불만이 적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되는 내부의 반전 여론을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통해서 형성된 중국 내부의 결속력 강화가 관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은 전쟁에 대해서 반전 여론을 관리할 수 있으나 미국은 다르다는 점도 중국이 전쟁을 택함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의 언론사들은 관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표현했으며 트럼프의 주요한 지지층 중 하나인 미국 트럭 운송 협회(ATA)는 공식적으로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관세전쟁의 영향으로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와 호주의 선거에도 영향을 끼쳤다. 보수 성향의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고 여당으로서 현직 효과까지 보고 있었음에도 진보 성향의 정당에 정권을 내어주고 말았다. 이는 동맹에도 미국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관세정책이 중국이 전쟁을 택하게 할 수 있는 동인 중 하나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3. 예견된 미국의 참전

이러한 가능성 속에서 미국의 참전은 확실해 보인다. 현재의 대중국 정책은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강경 기조 또는 전쟁 시에 참전의 기조는 명확해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이 참전하려는 무엇인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대만을 돕는 것은 약속이라며 이에 대해 당위성을 드러내는 발언을 줄곧 해왔다.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참전 하지 않고 관망만 한다면 그동안 미국이 맺었던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안전보장조약과 같은 군사조약과 핵우산에 대해 큰 의구심을 주게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더욱더 큰 의문이 따를 것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우려에 따른 핵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 참전해야 한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가 신임 총리로 올라오면서 헌법 개정 또는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서 재무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¹⁷. 일본의 재무장 선언은 동북아 군비 경쟁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군사력의 비대칭을 이끌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참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반도체 경쟁에서 선두에 서 있지 않다. 선두권 그룹에 속해 있지만 그룹의 핵심은 대만과 한국이다. 반도체에서의 핵심은 팹리스나 세미캡이 아닌 파운드리에 있으나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팹리스에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을 아시아의 반도체 고급 생산 허브로 만들었으며 대만을 미국의 반도체 산업

¹⁷ 김세호(2024.09.30), 「방위력 강화에 목소리 높이는 이시바..."핵공유·아시아판 나토 필요"」, 《ytn》, http://www.ytn.co.kr/_ln/0104_202409300925228443(2024.12.09).

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지정하고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¹⁸. 그렇기에 대만의 TSMC는 미국이 파운드리 공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 TSMC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만 문제에 관여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게 된다면 대만해협 역시 중국이 관리하게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원유가 대만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3할이 넘는 무역량이 대만해협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에너지적 약점을 통해서 한국의 HBM을 통제하고 AI 경쟁에서 미국을 억제할 수 있다.

대만은 서태평양의 제해권에서 중국을 막는 전진기지로서 역할하고 있다. 대만은 해양물류의 중심지로 중국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¹⁹.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접근 전략(A2/AD, Anti-Access/Area Denial)으로 미국의 역내 전진기지 유지 및 운용 그리고 미 해군의 자유로운 항해권을 위한 중점 지역으로서 역할 한다. 중국이 서태평양의 제해권을 확보한다면 일본, 한국, 그뿐만 아니라 괌, 사이판에 안보 우려를 주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대만의 역할이, 즉 대만이라는 방파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실제로 양국 간의 불완전하지만 휴전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 장성, 핵물리학자 등을 암살하면서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주요 시설을 공습하고 있음에 미국은 동조하여 전략 폭격기가 재배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이 기존에 유지해 오던 동부 유럽 전선과 중동 전선을 정리하길 원함을 보여준다. 기존에 미국은 동아시아 전선뿐만 아니라 중동 전선, 동부 유럽 전선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2021년 아프간에서의 철수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과 이스라엘을 통한 이란 공습을 통해서 전선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두 개의 전선을 해결함으로써 동아시아 전선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이다. 그만큼 미국이 동아시아 전선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중국과의 전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4. 불안정한 위치; 한국

한국의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있다.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권에 속해 있으나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노릇

¹⁸ 김동수 외4명(2024), 「대만 반도체산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이슈페이퍼』, 산업연구원.

¹⁹ 이현태(2023. 10), 집중분석 대만 총통선거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진단_대만, 현재 독립파 후보가 선두... 중국 '위험한 결심' 가능성 배제 못해, 월간중앙, 90~95쪽.

이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만해협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그러한 변화를 절대 반대한다.”라고 말했으며 재작년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극히 중요하며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고 말했다. 다음의 발언들을 보건대 한국 정부가 스탠스를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더는 양자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외교적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트럼프 행정부 또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중국의 침공에 대해 비판을 하고 대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을 대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 풍계리 갱도에서 활동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북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이 주한미군과 한국의 파병을 막기 위해 북한과 공조하여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국지도발을 강행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미국의 시선을 분산하려 시도할 수 있다. 특히 국지도발은 중·조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에 근거한다²⁰. 한국도 이를 핑계로 전투병 파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도 이에 대해 수궁할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내 미군기지를 공략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공격을 받은 한국의 국민의 여론이 참전의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내 미군 기지가 있는 군산, 오산, 평택 등지를 공격하거나 창원 병기창 또는 군함을 수리할 수 있는 조선소를 공격하는 등의 시나리오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크게 세 가지의 대응 방안이 있다. 첫 번째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공 체계를 활용하여 미사일을 적극 요격하는 방안, 세 번째는 중국 본토를 타격하는 방안이다²¹. 두 번째 방안 가장 유력해 보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서 거센 비판을 물고 올 수 있으며 마지막 방안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활용해야 한다. 최근 L-SAM의 개발로 미사일의 고도 별로 방공망을 구축하면서 방공체계의 완성도를 높였다²². 충분한 요격 능력을

²⁰ 강준영(2022), 앞의 논문, 9~32쪽.

²¹ 문계성(2023), 앞의 논문, 1~29쪽.

²² 지상에서 10km 상공까지는 LAMD로, 15~20km 고도는 천궁2, 0.06~40km 상공은 PAC-3(패트리엇)

갖추었기에 두 번째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중국이 희토류를 가지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철강의 합금 등 각종 첨단산업에 사용되어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의 70~90%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제1산업은 반도체이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에서 희토류가 없다면 반도체 산업은 휘청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압박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는 태도에 제동을 걸려 할 것이다. 한국은 희토류에 대해서 탈중국화를 빠른 시기에 이루어 압박에 벗어날 수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리튬 공장을 세워 리튬을 국산화했으며 금년부터 공급이 시작된다. 국내의 청주와 홍천 등지에 희토류 광맥이 발견되었다. 제3국이 아닌 국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재명의 진보 정권이 행정부를 장악했다.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은 친중, 친북, 반미, 반일의 기조를 기반으로 중국과 미국 문제를 다뤘었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선 후보자 시절에 “중국에도 썬썬, 대만에도 썬썬”라며 실용 외교를 주장하였다. 사실상 실용 외교보다 양안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또한 총리 후보자에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김민석 의원이 내정되면서 친중 행보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내정하면서 완전한 친중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한국의 정책적 방향성 제언

최근 대만해협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은 제19차 정치보고를 통해서 대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²³. 2022년 당시 하원의장이던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²⁴. 이때부터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과 대중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당시 하원의장인 메카시는 미국은 대만에 무기 판매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²⁵.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마치라 지시했다며 전쟁

로, 15km 이상의 고도는 천궁3, 40~70km는 L-SAM으로, 50~100km고도는 L-SAM2로 40~150km의 고고도는 THAAD로 방공망을 구성한다는 KAMD를 발표하였고 LAMD, L-SAM2, 천궁3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산 또는 실전배치 되어 있다.

²³ 류동원(2023),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만정책과 무력 사용가능성 검토」, 『현대사회과학연구』27,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1~42쪽.

²⁴ 지은주(2023), 「대만 2022: 펠로시 방문과 지방선거로 본 양안 관계의 격동기」, 『아세아연구』 66-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79~107쪽.

²⁵ 이장훈(2023. 5), 글로벌 포커스 2024년 대만 총통 선거는 美·中 대리전?_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미국은 수호할까, 월간중앙, 60~65쪽.

설을 더욱 키웠다²⁶. 중국의 강경 반응은 지속되고 있고 미국 항모 재배치를 통해 중국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²⁷.

미국은 대만을 보호함으로써 중국 견제, 반도체 공급망 유지, 군사동맹의 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제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견제를 위해 아시아판 나토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²⁸, 헌법 또는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 한국은 전쟁 시에 GDP의 약 23%가 하락할 것이다²⁹.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탈중국화를 하여 경제적 압박을 벗어나고 북한을 핑계로 군 수출자 지원만 하는 방향으로 전쟁에 대응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적 방향성은 무엇인가. 우선 기존 한국의 외교적 방향은 전략적 모호성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양안관계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동맹과 주변국에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외교적 일관성을 바탕으로 전략적 명확성을 취해 한미동맹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과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관계를 개선하여 양안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게 외교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명확성과 일관성은 군사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전술핵을 재배치하여 핵 역지를 활용할 수 있고 최근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SSN) 기술을 공여받아 SSN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SSN을 확보할 수 있다. SSN은 북한을 억제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 산둥반도와 랴오둥반도의 북해함대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관성으로 인하여 중국은 2016년 사드 배치 때처럼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한국은 이에 대비하여 디리스킹을 단행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 여러 사정으로 오프쇼어링이 발생하고 있다. 리쇼어링에 집중해야 한다. 기존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이재명은 노조와의 관계를 끊어 내야 한다. 또한 불법으로 파업을 진행할 시 임금을 지불하지 않게 하거나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 스파이를 국가

²⁶ 이장훈. (2023, 10). 글로벌 포커스 중국에 맞서는 대만 '고슴도치 전략'의 정체_유사시 中 싼샤댐 미사일 공격 시나리오까지. 월간중앙, 96~101쪽.

²⁷ SBS 뉴스(2024.11.23), <미 핵심 항모 워싱턴·빈슨·링컨 '무적의 3척' 뭉치는 이유 / SBS / 모아보는 뉴스>, SBS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B7g79OW-e94&list=WL&index=10>(2024.11.19).

²⁸ 김세호(2024.11.29), 「'아시아판 나토' 군불 때는 일본...자민당, 집단안보 체제 논의 시작」, 《ytn》, http://www.ytn.co.kr/_ln/0104_202411292242505081(2024.12.09).

²⁹ 이지현(2024-01-10), 「"中, 대만 침공시 한국 GDP 23%↓...대만 이어 두번째로 타격 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0002300072?input=1195m>(2024.12.09).

보안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주로 북한에 대해서만 작동한다. 이를 제3국으로 확대하는 법안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 보수라는 이념이 아닌 국가를 위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희토류 금수조치에 대응하여 또 다른 공급지를 찾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적극 활용하여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사례처럼 인도나 스웨덴의 희토류 공급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전쟁을 원하는 이유와 전쟁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지에 대해 알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동북아 국제 정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한국이 가져야 할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칼 폰 클레우제비츠는 『전쟁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은 다른 수단을 가지고 지속하는 정치다

중국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왜 시진핑 주석이 정치적 선택으로 전쟁을 선택할 것인지 본 고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장훈(2024. 2), 글로벌 포커스 '친미 독립파'의 승리로 끝난 대만 총통 선거 : 중국 '블랙리스트' 라이칭더 당선... 대만인들은 '제2의 홍콩' 거부했다, 월간중앙, 86~91쪽.
- 이장훈(2023. 5), 글로벌 포커스 2024년 대만 총통 선거는 美·中 대리전?_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미국은 수호할까, 월간중앙, 60~65쪽.
- 이장훈. (2023, 10). 글로벌 포커스 중국에 맞서는 대만 '고슴도치 전략'의 정체_유사시 中 썬샤댐 미사일 공격 시나리오까지. 월간중앙, 96~101쪽.
- 이현태(2023. 10), 집중분석 대만 총통선거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진단_대만, 현재 독립파 후보가 선두... 중국 '위험한 결심' 가능성 배제 못해, 월간중앙, 90~95쪽.
- 지은주(2023), 「대만 2022: 펠로시 방문과 지방선거로 본 양안 관계의 격동기」, 『아세아연구』 66-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79~107쪽.
- 김동수 외4명(2024), 「대만 반도체산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이슈페이퍼』, 산업연구원.
- 류동원(2023),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만정책과 무력 사용가능성 검토」, 『현대사회과학연구』 27,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1~42쪽.
- 김진호(2024), 「양안 관계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 양안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9-2, 한국동북아학회, 71~93쪽.
- 강준영(2022), 「중국-대만, 양안 무력 충돌 위기의 함의 -미국의 대만 지원 및 갈등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20-1, 한중사회과학학회, 9~32쪽.
- 김준영(2024),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도와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22-1, 한중사회과학학회, 35~62쪽.
- 문계성(2023),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 위협 분석과 대응」, 『접경지역통일연구』 7-1,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1~29쪽.
- 김지용(2024), 「중국의 대만 침공과 미국의 서태평양 철수 가능성 분석: 청중비용과 해군력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30-1, 세종연구소, 5~33쪽.
- 이지현(2024-01-10), 「"中, 대만 침공시 한국 GDP 23%↓...대만 이어 두번째로 타격 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0002300072?input=1195m>(2024.12.09)
- 최현준(2024.11.12), 「중국, 5세대 스텔스기 J-35 첫 공개...미 F-35 대항마」,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67007.html(2024.12.09)

최철(2024.04.13), 「미·일, 최고수준 '동맹'→日 '재무장'·北中露 '결속' 우려」,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2852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413093238(2024.12.09)

김세호(2024.10.15), 「일 언론 '북 폭파' 속보 타전...'아시아판 나토' 논의 속도 불나」, 《ytn》, https://www.ytn.co.kr/_ln/0104_202410152030005499(2024.12.09)

김세호(2024.09.30), 「방위력 강화에 목소리 높이는 이시바..."핵공유·아시아판 나토 필요"」, 《ytn》, https://www.ytn.co.kr/_ln/0104_202409300925228443(2024.12.09).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2024.12.3), <'21세기 마오쩌둥' 덩샤오핑은 죽었다...시진핑은 어떻게 중국을 망쳤나>,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XVWK1glEqck&list=WL&index=13>(2024.12.9)

SBS 뉴스(2024.11.23), <미 핵심 항모 워싱턴·빈슨·링컨 '무적의 3척' 뭉치는 이유 / SBS / 모아보는 뉴스>, SBS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B7g79OW-e94&list=WL&index=10> (2024.11.19)

KBS시사(2023.8.8), <타이완 위게임 [풀영상] | 창 430회 (KBS 23.08.08)>, KBS시사, <https://www.youtube.com/watch?v=FhVxF08Npxs&list=WL&index=7>(2024.10.11)

이현식(2024.3.9), <[지식뉴스] 상하이에도 베이징에도 '텅텅'...본격화된 중국 경제 침체의 진실 ① (ft.이현식 SBS D콘텐츠제작위원) / 교양이를 부탁해 / 비디오머그>, 비디오머그 - VEDIOMUG, https://www.youtube.com/watch?v=CSL_bZUKkCE&list=WL&index=11(2024.10.29)

김세호(2024.11.29), 「'아시아판 나토' 군불 때는 일본...자민당, 집단안보 체제 논의 시작」, 《ytn》, https://www.ytn.co.kr/_ln/0104_202411292242505081(2024.12.09).